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이경수**

차례

1. 전후 극복의 문제와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
2. 사랑의 발견과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김남조의 초기 시
3. 강건한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홍윤숙의 초기 시
4. 1950년대 시의 젠더적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를 대상으로 1950년대 문단에서 여성시가 어떤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시가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시에서 시도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려는 것이다.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에서 여성 형상은 희생양의 표상으로 등장하곤 했다. 이러한 여성 형상의 이미지는 이후 ‘부재하는 아버지와 핍박받는 어머니-누나-여동생’, 또는 ‘권력의 표상으로서의 아버지와 희생양으로서의 여성’의 구도로 1980년대의 시에까지 계승된다. 이런 한국문학사의 젠더적 지형 속에서 1950년대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가 갖는 지형적 의미는 적지 않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는 구원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형상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으며, ‘목숨’과 ‘생명’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전후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전후의 한국 사회를 폐허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이 후반기 모더니즘 시인들에 의해 팽배해 있었다면, 김남조·홍운숙을 필두로 한 1950년대의 여성시는 모성의 힘과 나무의 생명력을 토대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을 보여준다.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우주적 상상력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태양, 지구, 달, 별과 같은 천체가 등장하는 우주적 상상력이 1950년대의 두 시인의 시에서 자주 펼쳐지곤 했는데, 이는 전통 서정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우주적 상상력과는 차이가 있다. 우주적 상상력은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에서 일차적으로는 고난의 현재를 하찮은 지구상의 일로 보게 하는 기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을 맺으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전후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에 나타나는 우주적 상상력의 의미는 1950년대의 시사 속에서 주목되어오지 않은 특징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조의 시에서는 이후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정착되는 고백과 기구(祈求)의 어조가 주로 나타나고, 홍운숙의 시에서는 여성시로서는 다소 예외적으로 의지와 명령의 어조가 자주 발견된다.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1950년대 김남조와 홍운숙의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적 글쓰기의 단초로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적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남성-아버지-언어’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는 해체적 글쓰기이지만, 1950년대의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에서도 그 단초가 발견된다. 이들의 시가 지니는 고백적 어투에 대해서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좀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홍운숙의 시에서 기억을 통해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태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 주는 윤리적 시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쟁의 의미에 대한 지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시사 전체의 구도 속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어 : 1950년대, 여성적 글쓰기, 김남조, 홍윤숙, 전후 극복, 사랑, 기독교적 구원, 죄의식, 목숨, 고백과 기구의 어조, 나무의 상징성, 우주적 상상력, 기억한다는 것, 의지와 명령의 어조

1. 전후 극복의 문제와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

1950년대는 한국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대였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서 1953년 휴전 협정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은 사실상 해방기의 대립과 갈등이 폭발한 것이었으므로 해방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해방과 함께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는 갑작스럽게 닦힌 반쪽짜리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남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 분단이라는 예정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를 정비하면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구축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까지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식민성과의 단절을 통한 식민성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친일과 청산과 토지 분배의 문제는 그 가장 첨예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단독정부 수립을 선언한 남한 사회의 경우 친일과의 청산도 토지의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 미군정의 행정 편의주의와 비역사성은 결국 식민성과의 단절이라는 과제를 한국전쟁 후로 이월시키고 만다.

이로 인해 1950년대는 두 가지 콤플렉스와 과제를 안게 된다. 일제강점기 체험으로 인한 식민성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갖게 된 레드 콤플렉스는 1950년대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콤플렉스였다. 이와 함께 1950년대의 한국 사회는 해방기에서 이월된 식민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전후의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를 재건하는 과제가 남북한 모두에게 부과되었다. 사실상 전후의 상흔을 온전히 극복하는 일은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반공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공주의 담론은 이후 성장·발전주의 담론과 결합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하게 된다.¹⁾ 오늘날의 한국 사회조차 그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공주의 지배 담론을 주축으로 1950년대의 제도와 관행이 구축되어 간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단 역시 하나의 제도이자 관행으로 이 시기에 구축되었고, 학제와 교육과정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²⁾

전쟁의 그림자와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팽배한 전후의 한국 문단은 전쟁에 따른 문인들의 대대적인 이동과 그로 인한 재편이 불가피했다. 전쟁기에 월북한 문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월남한 문인들 역시 적지 않았다. 한국문학사는 적지 않은 수의 문인들을 외부적인 요인에

1) 한국 사회를 지배한 성장·발전주의 담론이 반공주의와 결합하게 되는 면모에 대해서는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3, 201~217쪽 참조.

2) 『문장』지의 3회 추천제는 해방 이후 문학지에도 계승되며 이는 1950년대에도 이어진다. 윤여탁은 한국전쟁 이후의 문단 재편에 대해,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조선청년 문학가협회’에 속했던 시인들이 이 당시 창간된 문예지 편집과 신인 추천에 관여하면서 우리 시단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한다(윤여탁, 『전환기 한국 현대시의 시 세계-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한국시학회 제2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 자료집』, 한국시학회, 2009.4.25, 63쪽). 문단의 주축세력이 된 이들은 각종 문학 제도와 관행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1950년대의 신인 추천제뿐만 아니라 검열 제도에도 일제 강점기의 흔적은 강하게 드리워진다. 다만, 일제 강점기 총독부의 검열 제도가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에 대한 검열을 주로 행사한 데 비해, 1950년대 이후에는 반공주의 담론에 의한 검열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후 반공주의 담론은 성장·발전주의 담론 및 그것이 변형된 신자유주의 담론과 결합하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으로 뿌리 깊게 작용하게 된다.

의해 잃어야 했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일 역시 시급해졌다.

현대문명의 파괴력에 동족상잔이라는 비극까지 더해진 한국전쟁의 무게는 전후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씌어진 시는 대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후반기 모더니즘의 시풍이거나 전통적인 것의 복원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풍을 지닌 시들이었다.

그간의 문학사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³⁾ 전후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1950년대 시사를 재구성할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성 시인들의 시이다. 물론 1950년대에 활발히 시작 활동을 한 여성 시인들의 수가 적었고, 그들의 시적 성취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지 여성 시인들에 의해 씌어진 시라는 점만으로 이들의 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은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처 입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천착한 시인들이었다는 점에서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는 1950년대의 시사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성과 종교성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시세계를 열어간 김남조의 시는 사랑과 구원이라는 의미를 통해 전후 극복과 치유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홍윤숙은 전쟁의 상처로 불모의 땅이 되어 버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목숨의 향연을 통해 극복해 보려고 시도한다. 특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뻗어가는 나무의 상상력은 홍윤숙이 회구하는 목숨에 대한 상징으

3) 대부분의 문학사에서 1950년대는 문학 역시 한국전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던 시기로 서술되는데, 여성 시인들에 대해서는 1950년대 시 전체의 지형도 속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별도의 향으로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의 주요 시인 16명을 선정해서 시인론을 엮은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나남, 1994)에서는 그나마 여성 시인이 아예 배제된다.

로 가능하다. 홍윤숙의 시가 목숨에 집착하는 이유도 전후 극복의 문제와 닿아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를 대상으로 1950년대 문단에서 여성시가 어떤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⁴⁾ 이들의 시가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시에서 시도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김남조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 출간된 세 권의 시집 『목숨』(1953), 『나아드의香油』(1955), 『나무와 바람』(1958)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홍윤숙의 경우에는 1947년에 『문예신보』에 「가을」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여 주로 1950년대에 활동하지만 첫 시집 『麗史詩集』을 동국문화사에서 1962년에 출간한다. 비록 시집 출간년도는 1962년이지만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 대부분이 1950년대에 씌어졌거나 그 연장선 위에 놓인 작품이라고 보아 이 논문에서는 홍윤숙의 첫 시집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김남조와 홍윤숙 모두 시전집이 출간되었지만,⁵⁾ 김남조의 경우에는 특히 개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두 시인 모두 출간 당시의 시집을 논문의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4) 일찍이 김현자는 홍윤숙과 김남조를 1950년대를 주된 활동기로 삼은 대표적인 여성 시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현자, 『한국 여성시의 계보』,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지성사, 1997, 349쪽;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292쪽.)

5) 『김남조시전집』은 국학자료원에서 2005년에 출간되었으며, 『홍윤숙시전집』은 시와 시학사에서 2005년에 출간되었다. 각각의 전집은 각 시인의 시세계의 전모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이지만, 『김남조시전집』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개작을 해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홍윤숙시전집』은 명백한 오탈자를 바로잡고 표기를 현행 맞춤법에 따라 바로잡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최초 발행 시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 사랑의 발견과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김남조의 초기 시

2.1. 죄의식의 표상과 목숨의 의미

김남조는 시전집을 엮으면서 자신의 초기 작품에 대해 감상 과잉과 언어의 미성숙을 지적한 바 있다.⁶⁾ 첫 시집 『목숨』과 두 번째 시집 『나아드르의香油』를 비롯한 1950년대의 김남조 시에서는 감상성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의 시들에는 ‘설움’과 ‘눈물’과 ‘슬픔’이라는 시어들이 자주 쓰인다. 이후의 그녀의 시집에서도 감상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집을 출간하면서 초기시의 감상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과감한 개작을 시도한 것만 보더라도 이후 그녀의 시가 초기시의 감상성을 극복하고 언어를 단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감상성은 눈물 젖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발견되기도 하지만, 죄의식에 젖어 있는 태도를 지닌 화자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김남조의 첫 시집 『목숨』에는 ‘죄’와 ‘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화자는 불행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거나 설움을 종종 노출하곤 한다.

아직 목숨을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꼭 눈을 뺏힌 것처럼 불상한
山과 家畜과 新作路와 정든 장독까지

누구 가랑잎 아닌 사람이 없고
누구 살고 싶지않은 사람이 없고
불 붙은 서울에서

금방 오무려 蓮꽃처럼 죽어 갈 地球를 붓잡고 살면서 배운 가장 욕심

6) 김남조, 「시전집을 펴내며」, 『김남조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18쪽.

없는 祈禱를 올렸습니다

半萬年 悠久한 세월에
가슴 틀어박고 매아미처럼 목 태우다 태우다 끝내
헛되이 숨저간 이건 그 모두 하늘이 내인 先天의
罰族이드래도

돌맹이처럼 어느 山野에고 굴러 그래도 죽지만 않는
그러한 목숨이 갖고 싶었습니다

— 「목숨」(『목숨』, 수문관, 1953) 전문

인용한 시는 김남조 시의 화자가 느끼는 죄의식의 근원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건 그 모두 하늘이 내인 선천의 罰族”인 셈이다. 한국전쟁의 체험은 “아직 목숨을 목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지로 이 땅의 생명들을 내몰았을 것이다. “누구 가랑잎 아닌 사람이 없”을 만큼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전쟁을 체험한 시인은 이제 안다. 그런 만큼 “누구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삶을 향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욕망은 더욱 강렬해진다. “불 붙은 서울에서/ 금방 오무려 연꽃처럼 죽어 갈 지구”를 붙잡고 위태롭게 살면서 화자가 배운 것은 “가장 욕심 없는 기도를 올”리는 일이라고 한다. 한여름의 매미처럼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했지만 끝내 헛되이 숨저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땅을 시인은 선천의 벌족이라 부른다. 벌 받은 민족이라는 표현도 섬뜩한데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전쟁의 체험은 목숨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화자는 “어느 산야에고 굴러 그래도 죽지만 않는” 돌맹이 같은 목숨을 갖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선천적으로 벌 받은 민족이라는 죄의식도 목숨을 향한 갈망만은 가로막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 운명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강렬히 목숨을 갈망하는지도 모른다.

罰하지 마시옵소서
진실로 그들을 罰하지 마시옵소서
당신 앞에 내가 잘못된 것에 비하면
그들 내 앞에서 잘못했음이
너무도 적사옵니다
主 그리스도 내 녀의 아비이신 이어

어이타 온전키를 바라리카마는
쌓아서 山岳처럼 높아진
잘못 또 잘못이었아오매
핍박과 恥辱과 좁혀진 天地가 모두
나로 인하여 罪됨인줄 아옵나이다

어둠 살라먹고 달빛 살라먹고
바다에 서면 바다물결에서
시냇물가에 서면 시냇물 줄기에서
어디라 곳곳이 내 屍體
내 다 허러진屍體 두등실 떠내려오고

主여! 이 목숨 불살라 한줌 재 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罪없는 한줌 재되게 하시옵소서
主 그리스도 永生을 가르치신 이어

—「죄」(『목숨』, 수문관, 1953) 전문

화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 잘못된 그들을
별하지는 말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主 그리스도” 앞에 화자 자신이 잘
못한 것에 비하면 그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고백한다. 이 순

간 이 시는 참회의 기도문이 된다.

시의 화자는 기꺼이 한 몸 바쳐 희생양이 되고자 한다. “뽀박과 恥辱과 좁혀진 天地가 모두/ 나로 인하여 죄”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곳곳에 혈어진 자신의 시체가 두둥실 떠내려 오는 것으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노라 기도한다. “이 목숨 불살라 한 줌 재 되게” 해 달라는 기도는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선언 같은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다만 罪없는 한줌 재”가 되는 것뿐이다. 자신의 죄는 물론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희생양이 되려 하는 이러한 태도는 김남조의 초기 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한 사랑이기도 하다.

‘사랑’은 김남조의 시에서 기독교와 여성이 만나는 매개를 형성한다. ‘사랑’은 기독교의 교리 중 하나이며, 김남조 시의 시적 주체이자 화자로 등장하는 여성의 주된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것은 대개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과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세 가지로 나뉜다. 흥미로운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럴 때조차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는 여성 화자의 희생과 순종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특징은 1950년대 남성 시인들의 시에서 종종 에로스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던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봉건의 시에서도 전후의 상처를 극복하는 이미지로 둥근 항아리를 비롯한 여성성의 이미지가 활용되는데, 이때 전봉건의 시에서 두드러진 것은 관능미와 에로스적 분위기이다. 김남조의 초기 시에서 여성성이 그려지면서도 ‘에로스’를 배제하는 데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2, 3세대 여성 시인들의 시에서 기독교적 특성은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신여성으

7) 이러한 김남조 연시의 특징에 대해 오세영은 ‘플라토니즘’이라고 규정하였다(오세영, 『사랑의 플라토니즘과 구원』, 『김남조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1133쪽).

로서 기독교적 교리를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 근대 교육을 체험한 여성 문인들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 2, 3세대 여성 시인들의 시에서는 여성의 욕망보다는 희생양과 구원의 표상으로서의 여성성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적 교리의 내면화라는 특징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죄의식을 씻으려는 시적 주체의 몸부림이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라면, 그것은 김남조의 시에서 종종 목숨과 관련을 맺으며 시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녀의 시적 주체가 죄의식을 갖게 된 데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무고한 죽음을 체험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고한 목숨들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이들이 직접 누군가의 목숨을 상하게 했던 그렇지 않은 간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은 것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바다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전쟁임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동반하는 것이 된다.

이 무렵 김남조의 시에는 우주적 상상력이 빈번히 등장하게 되는데, 이 또한 유한한 인간의 목숨과 대비되는 우주의 영원성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星宿」에는 “알알이 햇불 같은 永遠을” 지닌 별들과 “한낱 永遠의 極微한 破片을 두른 나”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밤하늘의 별들이 거대하고 영원한 것이라면 ‘나’는 극미한 파편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다.

2.2. 구원의 표상으로서의 ‘마리아 막달레나’와 사랑의 발견

성서에서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중 으뜸으로 언급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지켜본 여인으로 참회의 성녀로서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여성이다. 김남조의 시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구원의 표상으로서 종종 등장한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천한 신분의 여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았지만, 그녀의 환경적 조건이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상징성은 전후의 한국 사회에서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는 표상이었다. 성모 마리아 같은 성스러운 모성을 통한 구원이 아닌 가장 천한 신분과 몸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 사회에서도 영혼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상징성을 얻게 된다. 김남조의 시에 구원의 표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종종 등장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을 단념했을 때
당신께 대한 더욱 온전한 歸依를
祈願치않을 수 없었습니다
主여

더운 눈물이 줄줄이 돌속으로 스며들고
마지막 日沒과도같은 검은 차거운 바람만이
밤새워 불어오는 이 寂寥한 무덤에까지

一切의 比較를 넘으신 당신의
슬픔과 죽으심을 섬기려 왔아옵니다
主여

돌의 차거움 당신 墓石의

버히듯 아프고 차거움이어
 靑玉마냥 새파아란 하늘밑에
 철촉꽃 어우러 피듯
 당신 뿌리웁신 피며……눈물이며

진실로
 하늘과 따의 光榮 예서 더 피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영원한 어둠속에
 인간들 별 받고 죽어가야 옳음일 것을

당신 누우신 동산에 남아
 겨울도록 빌며 머리 풀고 섰으렵니다

불처럼……
 참말 불처럼 일던 그 목마르심……

五傷 받고
 아직도 宇宙만치 남던 慈悲여
 오오 초여

— 「마리아·막달레에나」⁸⁾(『나야드의 香油』, 산호장, 1955) 전문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이자 예술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기도 하다. 모두가 외면하고 무시한 그녀를 편견 없는 눈으로 보살펴 준 예수의 곁에 그녀 역시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인용한 시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예수의 죽음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목소리를 빌려 “일체의 비교를 넘

8) 이 작품은 전집에 실리면서 「막달라 마리아·1」로 제목이 바뀌고 시의 내용과 형식도 상당 부분 수정된다.

으신/ 당신의 슬픔과 죽으심”으로 칭송된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적요하고 차가워서 마음이 아플 지경이다. 예수를 그런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간 인간들에 대해 그녀는 “영원한 어둠 속에” “별 받고 죽어가야 옳”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당신 누우신 동산에 남아/ 겨울도록 빌며 머리 풀고” 서 있겠다고 말한다. 희생양을 자처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렇게 구원의 표상이 된다.

復活하신 날
처음으로 나타나 그앞에 보이신
이름이어
聖寵의 마리아·막다레에나

미여기처럼 윤나는 검은 머리채 눈물에 젖고
雪白의 두 손길
잠잠히 玉盒을 열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 바치는……
오오 靈妙한 東方의 香油!

사람들은
기름값 삼백 대나리온을 시비하며
無爲한 낭비를 하는 여인이니라고
마치 먼곳 異邦人같은
어설편 눈짓으로 둘러 서 보고

大地를 태우는 모진 퇴약별은
지지듯 내려쬐는데
女人은
超然히 긴 머리채 기름에 적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노니

音響도 없고
 時間도 멈춘
 오직 森嚴한 太初의 靜謐속에
 ……主를 뵈옵도소이다
 ……짐짓 여기 主를 뵈옵도소이다

아아 우르러는 汎濫하는 天上의 歡悅과
 옆디어 地上의 女人인
 이 肅然한 絶望과 설음……

옹도다!
 나의 마음에서 심이 가까운 자여
 저가 한 일은 곧 나의 葬死를
 미리 준비 함인줄을 알겠도다

그리스도는 잠잠이 끄덕여 보이시고
 그 기름 더욱
 향기롭더라 전합니다

— 『NARD의 香油』(『나아드의 향유』, 산호장, 1955) 부분

‘온 천하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는 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이 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성서 속 일화를 소재로 씌어진 작품이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의 고독을 알아본다. 긴 머리채를 기름에 적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겨 주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과 그녀의 마음을 다 이는 예수의 모습을 지상과 천상의 대립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이 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그 여인의 마음이 가장 높은 예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

리아 막달레나는 성녀와 창녀로 이분화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의 표상을 뛰어넘어, 천한 몸에 가장 성스러운 정신이 깃들 수 있음을 증거하는 표상으로 자리 잡는다.⁹⁾ 김남조의 시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그 단초나마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표상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구원의 표상으로 그려진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기 가난한 나라/ 괴로운 어머니들”(『거룩한 밤에』)에게 희망의 표지가 된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유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조국 산하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만신창이였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스스로 구원을 받고 다른 이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상처 입은 영혼들도 그렇게 구원될 수 있을 것임을 ‘마리아 막달레나’의 표상을 통해 시인은 암시한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예수를 향한 사랑은 예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닮았다. 그것은 희생과 순종으로서의 사랑,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가 핍박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한 데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표상이 지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3. 고백과 기구의 어조

1, 2, 3세대 여성시인들의 시에서 서간체 형식이 종종 발견되는데,¹⁰⁾

9) 신기훈은 『1950년대 후반 여류시에서 ‘여성주체’의 문제-김남조·박영숙·김숙자를 중심으로』에서 ‘신’으로 표상되는 ‘대주체’의 존재에 의해 주체의 의식이 선구성되어 있다고 김남조의 초기시를 비판한다.(신기훈, 『1950년대 후반 여류시에서 ‘여성주체’의 문제-김남조·박영숙·김숙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26집, 2004.5, 325쪽.)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지만, 막달레나 마리아의 표상을 통해 남성 중심의 여성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극복하려는 지향 역시 김남조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 이것을 초창기 여성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가령 조병화의 시에서도 서간체 형식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물론 그 역시 사랑이라는 소재를 종종 활용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근대적인

김남조의 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간체 형식은 대개 한 명의 청자를 향해 쓰여지는 형식이다. 한 명의 청자는 대개 ‘당신’, ‘그대’ 등과 같이 2인칭의 무게를 지닌 채 호명된다.¹¹⁾ 이때 한 명의 청자는 불특정다수의 독자들을 향하게 된다. 서간체 형식에 독자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 밀착감에 있을 것이다.

김남조의 초기 시에서도 서간체 형식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개 고백의 어조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기구(祈求)의 어조로 발화된다. 『만종』, 『기다리는 밤』 등의 첫 시집 『목숨』에 실린 시는 물론이고 『나아드의 향유』에 실린 『만가』나 『나무와 바람』에 실린 『거룩한 밤에』 등은 모두 이런 유형의 시이다.

노래를 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름을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검은 밤으로 돌아 갈 시간입니다

못별 눈감겨 주십시오
작은 틈새도 실오리만한 빛도 막아 주십시오
구석진 나의 골방에서
홍건히 피를 쏟아야하는 시간입니다

까닭을 묻지 마십시오

형식의 일종으로 서간체 형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윤식은 조병화의 시에 쓰인 서간체 형식을 근대적 표현 양식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서간체 형식은 대중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청자와 독자를 동일시하게 하는 서간체 형식은 독자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절한 형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연시에서 유독 서간체 형식이 두드러진 이유를 이로부터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11) 3인칭인 ‘그대’ 역시 우리말에서는 ‘당신’처럼 2인칭의 역할을 한다. 다만, ‘당신’이 좀더 직접성이 강한 호칭이라면 ‘그대’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창 하나가 끼어 있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 병을 따지려 들지 마십시오
 그처럼 내가 유순하리라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저 끝없는 긴 긴 밤이 있어야 한다고만 알아 주십시오
 돌기둥에 머리를 부딪고 죽고 싶던 야문 납덩이같은 외롭도
 이 밤엔 내 피속에 빠져
 간여린 나비처럼 숨 저야 한다고만 알아 주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밤에 거짓말을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부러 내가 왔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부러 내가 못 간
 그 한가지 밖에는
 참말 아무 설움도 보채일이 없었습니다

天心에 치솟던 피어린 連呼……
 地心으로 부어보낸 고탈한 눈물……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을 엿보려 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 편히 쉴 그곳으로 어서 가렵니다

이따금 洞穴같은 허출한 가슴 분안고
 어린 아들처럼 안기려 오던
 착한 내 사람…… 착한 내 사람……

아무래도 목숨은 졌고
 꽃잎인양 훌훌 목숨은 졌고
 남은건 부디

水晶같은 諦念이어야 하겠습니까

못 별 눈감겨 주십시오

영원히 어둠으로 두어 주십시오

무덤엔 아무말도 색이지말아 주십시오

행여 슬펏다고 말을 전하지 마십시오

—『輓歌』(『나아드의 香油』, 산호장, 1955) 전문

만가는 상엿소리나 죽은 이를 애도하는 노래를 뜻하는 말이다. 간절한 기구의 어조를 통해 시의 화자는 죽은 이를 애도하고 위로하고자 한다. 화자의 만가는 죽은 이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남은 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목숨은” 져 버린 “착한 내 사람”의 죽음 앞에서 “水晶같은 諦念”이 필요하다고 화자는 말하면서도 정작 “나의 검은 밤으로 돌아”가 영원히 어둠이 되고자 한다. 못별의 눈마저 감겨 달라는 말은, 죽음과 같은 암흑의 세계에 자신을 윤패시키지 않고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견딜 수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의 간절한 기구의 어조는 “무덤엔 아무말도 색이지말아 주십시오”에서 극에 달한다. ‘-으십시오’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간절한 기구의 어조는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김남조의 초기 시에서 기구의 어조와 함께 두드러진 것은 고백의 어조이다. 자기 고백적 문체는 여성문학의 특징이자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서정시는 태생적으로 자기 고백적인 문체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시의 고백적 어투는 두드러진다. 김남조의 1950년대 시도 그런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 고백적인 어투가 쓰였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백이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텅 빈 고백, 내용 없는 고백이 고백적인

어투로 쓰였다는 점에서 김남조 시의 특징을 찾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내용 없는 고백이 김남조의 시에서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처 입은 영혼을 괴롭힘으로써 상처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여 각성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 입은 영혼을 위무함으로써 상처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김남조의 시는 독자들을 각성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상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독자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었다. 강은교, 고정희, 최승자 등의 개성적인 여성 시인이 출현하기 전까지 고백의 어조를 활용한 위안의 언어는 여성시의 언어가 갖는 특징으로 기능하게 된다. 고백에 진솔하고 신랄하고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여성의 욕망이 담기면서 여성적 글쓰기는 본격적으로 실현되지만, 텅 빈 고백일망정 고백의 어조를 활용한 것은 김남조의 시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단초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강건한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언술의 새로운 가능성 - 홍운숙의 초기 시

3.1. 나무의 상징성과 우주적 상상력

김남조의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홍운숙의 시에는 감상적인 목소리가 덜 노출되어 있다. 물론 이 비교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차이임에는 틀림없다. 고정희와 최승자 이전,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강은교 이전의 여성시에 대해서는 감상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 판단에는 대개 부정적인 가치가 실려 있었다. 1950년대까지의 여성 시인들의 시는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 홍운

숙의 시는 동시대의 다른 여성 시인들의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상적인 목소리가 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¹²⁾

홍윤숙의 1950년대 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나무’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 나무는 불모의 땅에서 자란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동적인 생명을 상징하며, 여성원리를 상징한다.¹³⁾ 홍윤숙의 시에서도 나무는 불모의 땅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다.

이제는 아무것에도 꺾이우지 않을
한구루 든든한 樹木이리다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기엔
긴 年輪이 그위에 스쳤고
부질없는 바람이 넘나든들
우람히 뻗은 가지 가지들
굳건히 이겨주는 마음이리다

폭양과 凍死의 무서운 계절에도
끝내 이겨야 할 樹木의 운명은
항시 젊은 戰士의 장열한 최후와도
같았음을
한방울 푸르고 싱싱한 樹液을 위해
온 몸의 살갓은 살살이 해를 향해
메말라갔고

12) 물론 이런 홍윤숙의 시에 대해서도 외적 폭력에 스스로 위안 받거나 구제 받기 위한センチ멘탈리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8, 196쪽). 실제로 동시대 여성 시인들의 시와 같은 지평 위에 놓고 홍윤숙의 시가 갖는 차이를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13) 진 쿠파,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1994, 416쪽.

넓으나 넓은 大地위에 발돋움 든든한
 자리를 위해
 밤마다 樹心은 눈물 지었음도

이제는 아무것에도 傷念하지 않을
 한구루 으젓한 樹木이리다

어쩌다 지나가는 暴風雨에도
 간혹 태양이 뜨지 않는 빈 하늘에도
 담담한 忍耐와 상냥한 寬容, 그리고
 깊은 憂愁는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 가는것

아, 한세상 눈물 창창히 저무는 날엔
 말없이 돌아 앉아 落葉을 지피며
 樹心에 고인 노래 불러 보리다

이제야 정녕 歲月을 깔고 太陽을
 이웃 삼아
 가지위에 머드는 한마리 새야 있건 없건
 철철이 푸른 잎 피고 지우며……

화사스런 꽃들이 지고 나면
 樹木은 한창 벅찬 목숨의 계절
 우람한 환히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 가는것

— 『樹木의 書』(『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¹⁴⁾ 전문

14) 『홍윤숙전집』(시와시학사, 2005)에 실린 같은 제목의 시에서는 들여 쓴 연이 정련되고 '상냥한 관용'이 '넉넉한 관용'으로 바뀌는 등 표현도 일부 수정되었다.

시의 화자가 회구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에도 꺾이거나 상심하지 않을 한 그루 든든하고 의젓한 수목이다.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꽃보다 긴 연륜을 지녔고, 부질없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지닌 나무 한 그루를 소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나무는 다름 아닌 화자가 회구하는 마음 상태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상징한다. 화자 스스로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우도 거뜰히 이겨내면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와 담담한 인내와 상냥한 관용을 지닌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화자의 바람이다. 가지 위에 머무는 한 마리 새야 있던 없건,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으면서 자기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성숙한 존재이고 싶은 화자의 욕망이 나무에 투사된다.

비같은 상황에 의해 상처 입고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시인은 나무와 같은 단단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꽃은 나무보다 화려하지만 잠깐 빛나고 나면 지게 마련이다. 그에 비해 나무는 꾸준하고 질기다. 나무의 저 든든한 생명력이야말로 전후의 상처를 극복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 될 만하다.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리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리

우리는 地上에 떨어진 수만의 별들

제각기의 길을 가는 각각의 그림자

나와 더불어 이世上 어느 한 구석에

살아 있다는

다만 살아 있다는 그것만으로
다행한 우리들

우리는 慾望이라는 이름의 씨를 뿌려
가히 虛無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 왔거니

서러워 하지 말자 언젠가 다시
邂逅의 약속 없음을
굳이 바래옵거니
時空을 넘어선 無想의 언덕위에
무심히 마주 선 한쌍의 銀杏이기를

久遠한 마음의 하늘 水晶의 바다를
머리에 이고
아득히 바라보는 바래움 없는 位置에서
묵묵 自盛 하는 나무의 歷史

살아 있음은 오직 하나의 權能
우리옆에 이웃 있음은 또 하나
다사한 榮光

내 마음 줄 그 한 사람 있음이라
크나 큰 生命의 饗宴이어니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리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리

나와 더불어 이世上 어느 한 구석에
살아 있다는
다만 살아 있다는 그것만으로

다행한 우리들

우리는 慾望의 밭에 핀 흰빛 虛無를
거두며 살아 온 無償의 園丁

서러워 하지 말자 언젠가 다시
邂逅의 약속 없음을

—「生命의 饗宴」(『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전문

“사랑하지 않아도 좋”고,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니, “나와 더불어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 살아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 있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실감 나게 다가왔을 1950년대에 가능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살아 있는 모습으로 시의 화자가 상상하는 것이 바로 나무의 형상이라는 점이다. “시공을 넘어선 무상의 언덕위에/ 무심히 마주 선 한쌍의 銀杏이기를” 화자는 조심스럽게 소망한다. 묵묵히 자성(自盛)해온 것이 “나무의 歷史”라고 화자는 믿는다. 꼭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생명이 있음을 시인은 잘 알고 있다.

그는 나무로부터 “자욱히 땅에 깔리는 숲한 목숨들”을 보기도 하고, “슬픈 抗拒의 몸짓을 보”기도 하며 “敬虔한 목숨의 合掌”(『白楊에 부치는 노래』)을 보기도 한다. “孤高와 忍從의 늠름한 자세를” 지닌 나무는 화자의 바람대로 “떨리는 가지 가지 성성히 두 팔 가누어/ 하늘을 지키는 숙성한 모습을”(『白楊에 부치는 노래』) 보여준다. 나무는 홍윤숙의 시에서 “스스로의 무거움을 안으로 다져가는/ 연륜”(『夜想曲』)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하듯이, 전쟁의 상흔을 겪어냄으로써 시인 자신도 좀 더 성숙한 연륜을 지닌 존재가 되기

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무는 종종 하늘과 땅의 합일을 상징하는 우주목의 형태를 띠거나 우주 전체를 표상하는데, 홍윤숙의 시에서도 나무의 상징은 자연스럽게 우주적 상상력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가 하면 『母心』에서는 나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엄마와 떨어져 잡초처럼 강해져 가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가족이 해체된 원인은 한국전쟁에 있다. 나무로 대표되는 식물성의 이미지는 홍윤숙의 시에서 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성숙해가는 존재를 표상한다.

3.2. 망각의 땅에서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망각의 늪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반복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나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기억하는 행위가 강조되는 이유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이때 기억한다는 것은 윤리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은 비단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진행되다 보면 피해자들만을 낳을 뿐 가해자가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낳곤 하는데,¹⁵⁾ 이 또한 기억과 윤리의 문제와 관련된다.

홍윤숙의 초기 시에는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억한다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쪽끼리 총칼을 겨눠야 했던 한국전쟁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를 기억하는 일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15) 히로시마 원폭 투척은 일본을 줄지에 전쟁의 피해자로 둔갑시켰으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있어도 가해자는 사라진다. 피해자로서의 기억과 피해자들만이 우글거릴 뿐이다.

뜨거운것은 아니올시다
 불 붙는 것은 더욱 아니올시다

높고 맑은것
 겨울날 두터운 얼음장 밑에 고이는
 파-란 옹달샘 같은 그러헌것이
 나의 태양이었읍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움 바치지 않고
 잊히워 버린 작은 灌木처럼
 살아 온 어느 세월

나는 마음 착한 少女처럼
 忍耐라는 험준한 戀人을 심겨왔읍니다

季節의 換期—
 빗발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엔
 눈 먼 女人처럼 지척거리는
 마음의 고삐를 채찍질 하며

아 진정 그리워 한다는것이
 사슬처럼 무거운 밤
 당신의 무서운 責罰앞에
 나 옆드려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풀을 길 없는
 하나의 約束을

어찌 할수 없이 지켜야만 되는

무서운 約束을 주셨습니까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죽어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懊惱스러운 約束을……

—『하나의 約束을』(『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전문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죽어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약속이 무서운 이유는 기억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언약으로부터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된다. 기억한다는 것의 무게는 그 생명의 존재감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다. 화자는 그리움의 무게를 “사슬처럼” 무겁다고 표현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즉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당신의 무서운 責罰”이 되고 “懊惱스러운 약속”이 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는 사랑의 약속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무서운 기억이자 번뇌를 동반하는 괴로운 기억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떠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죽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화자와 함께 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다. “힘준한 戀人”이라고 ‘인내’를 지칭하면서도 미움이라는 감정은 품지 않았다고 화자는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화자는 당신을 기억하는 행위에 신성함을 부여하고자 한다. 화자의 이런 태도는 이 시에서 말하는 하나의 약속, 즉 기억하는 행위가 단지 연인끼리의 사랑의 약속에 머물지 않고 더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홍윤숙의 시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기억하는 행위와 그것

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윤리의식을 동반한다.

千年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 고이는
石像의 피진 가슴
忍辱의 歷史속에 멍멍히 엮드린 忘却의 땅

누가 맨 처음 이 땅에 무서운
不信의 씨를 심어 놓았을까
壁을 향해 도리얏은 내마음의 絶地

不毛의 땅에 슬픔을 거두어
돌아난 가시나무
한숨같은 작은 詩歌들
白雪의 새벽, 風雨의 漆夜
소리없는 설레임에
잠잠히 빛을 잃고 스러지느니

어느때가 묻혔던 노래들 아픈 합성
줄줄이 피어날 山비탈 비탈
주름진 골짜기 마다에
오늘은 쓸쓸한 光陰의 소리 물결쳐 흐르고
섭리를 등진 고단한 마음 더더욱 굳어
봄은 영원히 地心에만 사는가

한포기 싸리도 나지 않는 빈 땅위에
태양은 한 마리 외로운 짐승처럼
굴러 다녔다.

—「不毛의 땅」(『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부분

천 년간 수많은 피를 흘리고도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서 가슴에 피멍이 들어버린 이 땅을 화자는 “인옥의 역사속에 멍멍히 었드린 망각의 땅”이라고 부른다. 망각의 땅에서는 생명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그곳은 바로 불모의 땅이기 때문이다.

어느 땐가 묻혔던 노래들이나 아픈 함성을 주름진 골짜기에서 줄줄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기억의 힘이다. 기억한다는 것만이 망각의 땅, 불모의 땅에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음을 시인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도 한다. “가고 싶다……/ 폐허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이제는 봄빛 하나 보이지 않는/ 荒漠한 廢都일지라도”. “한여름 때구름 몰아치는 처절한 砲火에/ 푸른 平和는 땅 위에 깨어지고/ 몇 번인가 까무라치듯 숨죽던/ 서울의 하늘을/ 끝내 지키던 淒夏의 記憶……/ 그것도 이젠 아득히 먼 옛일 같은데”(『가고 싶다 廢墟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폐허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가고 싶다는 것은 괴로운 전쟁의 체험이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화자의 다짐이자 바람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의지와 명령의 어조

김남조의 시가 서간체의 형식을 빌려 무언가를 고백하거나 간절히 기구하는 어조를 종종 띠고 있는 데 비해, 홍윤숙의 시는 좀 더 강건한 어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녀의 시는 종종 의지적인 어조를 띠거나 명령형 어조를 사용한다. 1950년대에 전쟁의 상처를 좀 더 이성적으로 극복해 보고자 했던 홍윤숙의 시적 지향이 한층 더 의지적이고 단호하게 화자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어조를 낳은 것이겠다.

이제사 내 낡고 기우러진 지붕이며 썩은 돌담
오-랜 홍솔나무 기둥들

그 모든것이 砲彈에 흔적없이
부서져 없어졌다 한들
나는 슬퍼 하지 않으리라

오직 그곳에 한조각
타다 남은 기와장이건
한포기 사랑스런 꽃이 피어
人情스레 가난한 主人을 맞아 준다면
나는 감사하리라

廢墟에 土屋을 세우고 꽃을 피우며
진정 다시는 受難없이 살고 싶음이어

—「가고 싶다 廢墟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부분

전쟁이 흔적 없이 부수고 무너뜨려 버린 옛집이며 마을이라 해도, 포 연으로 인해 이미 폐허로 변해 버린 거리일지라도 그곳에 가졌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으리라’라는 종결 어미에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설사 폐허만을 확인하게 된다 해도 슬퍼하지 않겠다고 한다. 심지어 그곳에 한 조각 타다 남은 기와장이건 한 포기 사랑스런 꽃이건 남아서 가난한 주인을 인정스레 맞아 준다면 감사하겠다고까지 말한다. 의지적인 어조로 인해 화자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된다. “廢墟에 土屋을 세우고 꽃을 피우며/ 진정 다시는” 전쟁 같은 “受難없이 살고 싶”다고 그가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의지와 바람에 어느새 동조되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지적인 어조와 함께 홍윤숙의 시에서는 설의형 의문의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 역시 화자의 생각을 한층 강하게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명령형의 어조도 「白楊에 부치는 노래」, 「어린 對話者」, 「歡別」 등에

서 강하게 쓰였고, 청유형의 어조도 자주 눈에 띈다. 다만, 이러한 어조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차이가 홍윤숙 시의 개성을 좀 더 강화한다. 『白楊에 부치는 노래』에서 시의 화자는 백양나무를 바라보며, “때 오면 어진 樹木의 習性を 닮아/ 자욱히 땅에 깔리는 슬한 목숨들/ 이름 없이 아쉬움 없이/ 한갓 자랑스레 눈 감는/ 슬픈 抗拒의 몸짓을 보라/ 敬虔한 목숨의 手掌을 보라”고 말한다. 백양나무는 홍윤숙의 시에서 이 땅의 민중들의 모습을 환기한다. 그들은 어진 수목의 습성을 닮았고, 슬픈 항거의 몸짓을 하고 있으며, “평화와 환호의 손길”을 지니고 있다. “年輪과 苦難을”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며/ 孤高와 忍從의 늠늠한 姿勢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들은 서로 닮았다.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연륜과 고난이 아로새겨진 우리 민족 또한 저 고고(孤高)한 백양나무처럼 늠름하게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기를 시인은 바랐던 것이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홍윤숙의 시에서는 종종 명령과 청유의 어조를 띠고 나타난다. 1950년대의 홍윤숙 시는 강건하고 의지적인 어조를 통해 여성시의 어조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얼마간 기여한다.

4. 1950년대 시의 젠더적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에서 여성 형상은 희생양의 표상으로 등장하곤 했다. 1950년대 신세대 작가의 소설에서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형상은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여성 형상의 이미지는 이후 ‘부재하는 아버지와 꺾박받는 어머니-누나-여동생’, 또는 ‘권력의 표상으로서의 아버지와 희생양으로서의 여성’의 구도로 1980년대의 시에까지 계승된다.¹⁶⁾ 제도에 대한 반발력을 여성 형상이 갖게 된 것은 고정희, 최승자라는 걸출한 여성 시인이 등장한 이후의 일이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한국문학사의 젠더적 지형 속에서 1950년대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가 갖는 지형적 의미는 적지 않다.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는 구원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형상을 그려내는데 성공했으며, ‘목숨’과 ‘생명’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전후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전후의 한국 사회를 폐허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이 후반기 모더니즘 시인들에 의해 팽배해 있었다면, 김남조·홍윤숙을 필두로 한 1950년대의 여성시는 모성의 힘과 나무의 생명력을 토대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을 보여준다.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우주적 상상력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태양, 지구, 달, 별과 같은 천체가 등장하는 우주적 상상력이 1950년대의 두 시인의 시에서 자주 펼쳐지곤 했는데, 이는 전통 서정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우주적 상상력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주적 상상력은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에서 일차적으로는 고난의 현재를 하찮은 지구상의 일로 보게 하는 기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을 맺으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전후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에 나타나는 우주적 상상력의 의미는 1950년대의 시사 속에서 주목되어오지 않은 특징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남조의 시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정착되는 고백과 기구의 어조와 홍윤숙의 시에서 다소 예외적으로 발견되는 의지와 명령의 어조는, 1950년대 시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그 단초로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적 글쓰기는 일

16) 이성복의 시는 물론이고,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시들이나 민중가요에서 이러한 구도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반적으로 ‘남성-아버지-언어’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는 해체적 글쓰기로 정의된다. 여성적 글쓰기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렌 식수의 『메두사의 웃음』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는 ‘말중심주의’와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¹⁷⁾ 엄밀하게 말해서 1950년대의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에서 그와 같이 기성의 제도적 글쓰기에 저항하거나 여성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시대의 남성 시인들의 시에서 드러나는 글쓰기의 태도와는 다른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

김남조 시에 나타난 고백의 어조는 비록 텅 빈 고백의 내용을 동반하지만 이후 여성시의 고백적 글쓰기의 단초를 그로부터 발견할 수 있으며, ‘마리아 막달레나’로 표상된 구원의 여성상도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나누어 보는 이분법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남조의 시가 지니는 고백적 어투에 대해서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윤숙의 시에서는 여성시로서는 드물게 의지와 명령의 어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여성시의 어조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기여한다. 특히 홍윤숙의 시에서 기억을 통해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태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 주는 윤리적 시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쟁의 의미에 대한 지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시사 전체의 구도 속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17) 이봉지, 『엘렌 식수와 여성적 글쓰기』, 『세계의문학』 2001년 겨울호, 237~241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남조, 『목숨』, 수문관, 1953.
 김남조, 『나아드의香油』, 산호장, 1955.
 김남조, 『나무와 바람』, 정양사, 1958.
 김남조, 『김남조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홍운숙, 『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홍운숙, 『홍운숙시전집』, 시와시학사, 2005.

2. 단행본

-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11~31쪽.
 김경수 편,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21, 2000, 1~282쪽.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8, 196쪽.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292쪽.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11~27쪽.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3, 201~217쪽.
 쿠퍼, 진,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1994, 416쪽.

3. 논문 및 평론

- 김귀희, 「홍운숙 시 연구」, 『비평문학』 제20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5, 7~30쪽.
 김용희, 「근대 대중사회에서 여성시학의 현재적 진단과 전망」, 『대중서사연구』 제10호, 대중서사학회, 2003.12, 220~243쪽.
 김현자, 「한국 여성시의 계보」,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지성사, 1997, 349쪽.
 서준섭, 「정념과 사랑과 기도의 시-김남조 시 연구를 위한 노트」, 『시와시학』 2006년 봄호, 43~66쪽.
 신기훈, 「1950년대 후반 여류시에서 ‘여성주체’의 문제-김남조·박영숙·김숙

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26집, 2004.5, 319~338쪽.

오세영, 『사랑의 플라토니즘과 구원』, 『김남조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1123~1142쪽.

윤여탁, 『전환기 한국 현대시의 시 세계-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한국시학회 제2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한국시학회, 2009.4.25, 57~65쪽.

윤호병, 『생명, 사랑, 신앙: 김남조의 시세계』, 『시와시학』 1997년 가을호, 96~111쪽.

이봉지, 『엘렌 식수와 여성적 글쓰기』, 『세계의문학』 2001년 겨울호, 237~241쪽.

_____, 『엘렌 식수와 여성주체성의 문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7집, 한국프랑스학회, 2004.8, 235~252쪽.

Abstract

The Topography of Women's Poetry and The Possibility of Feminine Writing in the 1950s

— With a focus on the poems by Kim Nam-jo and Hong Yun-suk

Lee, Kyung-soo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topography of women's poetry in the literary community of the 1950s, examine how those poems tried to overcome the wounds of the Korean War, and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feminine writing attempted in those poems based on the works by Kim Nam-jo and Hong Yun-suk in the 1950s. In literary works whose main theme is war, female figures often represent victims. Such an image of female figures continued in the poetry in the 1980s under the structure of "absent father vs. oppressed mother and sister" or "father as an authoritative figure vs. woman as a victim." In the gender topography of Korea's literary history, the poems by Kim Nam-jo and Hong Yun-suk in the 1950s have significant topographical meanings.

Their poems succeeded in depicting female figures as the representation of salvation and tried to heal and overcome the wounds after the Korean War by uncovering positive values such as "the breath of life" and "life." The late modernism poets were overwhelmed by an idea that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war should be regarded as ruins, that everything must be destroyed, and that there should be a new start on a clean slate. Contrary to that tendency, women's poetry in the 1950s led by Kim and Hong demonstrated a will to treat and overcome the wounds of the war with maternal force and a tree's life force.

Common to Kim's and Hong's poems, universal imagination also deserves attention. Involving such heavenly bodies as the sun, the earth, the moon, and

stars, universal imagination made often appearances in the two poets' works in the 1950s and differed from natural-universal imagination common to traditional lyric poems. In their works, universal imagination makes the current suffering seem like a trivial earthly matter and further helps to cope with the dismal situations after the war dominated by the dark shadow of death by forming relations with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life. Thus universal imagination in the poets' works contains meanings not recognized in the poetic history of the 1950s and deserves reevaluation.

While Kim employs a tone of confession and praying, which later settled down as part of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ne writing, in her poems, Hong often uses a tone of determination and order that's rather exceptional. Their feminine writing in the 1950s provides clues to feminine writing later through their tones. Feminine writing in general is deconstructive writing to rebel against "male-father- language," and its buds are found in Kim's and Hong's poems in the 1950s. The tone of confession in their poems requires more detailed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ne writing. In particular, Hong's attitude of ruminating upon the war's meanings through memory deserves definite attention i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poetic history of the 1950s in that it adopts an ethical point of view to open a door to the treatment and conquest of the wounds of the war, which was waged in the name of father, and that it allows for intellectual reflections of the meanings of war.

Key words : the 1950s, feminine writing, Kim Nam-jo, Hong Yun-suk, overcoming the wounds of the war, love, Christian salvation, guilty consciousness, life, tone of confession and praying, symbolism of tree, universal imagination, remembering, tone of determination and order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